



나주시가 빛가람동의 '호혜원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8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축사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알려진 호혜원 일대의 모습.

빛가람도시 악취 고통 내년 봄엔 사라질 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동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호혜원 악취가 이르면 내년 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호혜원 악취의 주원인인 돼지농가의 폐업보상을 하기 위해 내년에 80억원(시비 50억·도비 3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주시는 26일 “다양달 시의회와 도의회에 의결이 끝나면 양돈을 하고 있는 17농가에 2만3900마리의 돼지를 우선 매입해 폐업을 유도해 빛가람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혜원에 전체적인 보상이 마무리되면 혁신도시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는 축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시와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공동으로 내년 1~2월에 감정평가를 한 후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해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향후 보상에 있어 토지 형질변경과 무허가건물은 1989년 1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이다.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222번지 679.540㎡ 일원에 위치한 호혜마을은 지난 1946년에 나환자 370여명이 정착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에서 의뢰한 용역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 거주 세대수는 147세대에 286명이 살고 있다.

이 중 한센병 등록환자는 총 83명으로

나주시, 호혜원 돼지농가 폐업보상 예산 80억 편성
17농가 2만3900마리 우선 매입... 1·2월 감정평가



호혜원마을앞에 위치한 저수지로 완전히 정화되지않은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거주세대는 62세대로 조사됐다.

또 호혜마을에 건축물은 824동이며, 축사건축물은 327동(사용 268동, 폐축사 59동)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의 규모는 99가구이며 ▲돼지는 72가구 247동 2만3900마리(72.2%) ▲소는 14가구 23동 108두(14.1%) ▲닭은 6가구 8만마리(6.1%) ▲기타(개) 7가구 36

동 1700마리(7.1%)로 집계됐다.

또 호혜원 전체 축사 매입에 따른 보상액은 ▲토지 6만219㎡(48억7800만원) ▲건축물 327동(135억4900만원) ▲축산 10만5708마리(91억7400만원) ▲기타 수목 등(55억2000만원) 총 331억2100만원이다.

시는 가축 중 악취가 심한 돼지사육을

우선 중단하고 소, 닭 등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폐업보상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및 폐업농가 85가구에 건축물 327동을 매입해 주차공간이나 공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바이오 순환림을 일부 이식한다.

시는 호혜원 전체개발비용은 토지 20만평에 대한 보상비 6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폐업보상비용은 330억이다.

시는 또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호혜원 폐업보상을 위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주시 한 관계자도 “돼지 외에 가축이나 추후 토지·건물 보상 등에 예산은 열악한 시의 재정상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부지 개발 업체를 유치해 예산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도 나주시의 이 같은 대책을 반기고 있다. 한 주민은 “한센인 35~40명이 거주할 생활시설을 조성해주고, 폐업보상이 끝나면 축사 및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도 늦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주=글·사진 손영철기자 ycon@

분뇨처리공장 건립 놓고 시끌

나주축협 왕곡면 신곡리에 착공

주민 찬반 갈등 속 지역업체들 반발

나주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분뇨처리공장)이 주민 찬·반 갈등과 지역 업체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분뇨 처리 특성상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역 관련 업체 등도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나주축협은 26일 “이날 나주시 왕곡면 신곡리에서 분뇨처리공장 착공식을 한다”고 밝히 반대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2011~2015년)을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나주축협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나주축협을 중심으로 공산농협, 마한농협,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 2012년 4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 마한농협이 빠진 채 3개 업체만이 3년의 추진기간을 거쳐 착공식을 하게 됐다. 분뇨 처리 공장은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의 재처리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나주 지역에 이와 유사한 업체 30여 곳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친환경농업과 액비생산업체 2곳은 지난 2010년과 11년에 각각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으나 주재료인 분뇨 부족으로 시설가동률이 50%에 그치고 있다.

이들 기존 업체들은 “분뇨 처리 공장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0여개의 업체

와 퇴비 생산 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새로운 분뇨 처리 공장을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총 사업비 100억원이 필요한 분뇨 처리 공장 건립을 위해 80억원의 보조금(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35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논란도 빚고 있다.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형태의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의 경영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공장이 들어서는 왕곡면 인근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져 나주시청 광장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B업체는 최근 반대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분뇨 처리 공장 건립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또 나주시가 “반대 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후에 착수한다”는 조건을 내건 ‘도시계획심의조건부승인’을 해줬지만 나주축협이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에 나서고 있으나 시는 해결책강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축협 김옥현 조합장은 “이 사업은 많은 축산인이 찬성을 하고 있고 축산인들의 생명줄과 같으며, 최종적으로 시장이 나서 반대할 경우 ‘주민소환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혁신산단 새 이사진 구성...대표이사에 장주일씨

나주시가 출자한 나주혁신산단(주)이 24일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다.

나주시는 26일 “지난 24일 열린 나주혁신산단(주) 임시주총회에서 장주일(전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소장), 김광덕(나주시방시문화 공동대표), 홍철식(나주시의회위원장 등 3명)을 이사로 추천, 전체 이사는 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나주혁신산단(주) 이사회에서는 장주일 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나주혁신산단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장주일 대표이사(60)는 36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나주국민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나주혁신산단 주총에서는 나주시 회계과장을 선임감사로 선임했다.

나주시는 지난 10월 28일 나주혁신산단(주)의 주주인 KB투자증권 및 동광건설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11월 5일 전체 자본금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의 출자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혁신산단 조성 및 분양 등 현안 해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호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